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정치학석사 학위논문

# 정당 지지와 이슈 태도

## -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

2022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김 수 인

# 정당 지지와 이슈 태도

## -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강 원 택

이 논문을 정치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김 수 인

김수인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7월

위 원 장 박 원 호 (인)

부위원장 강 원 택 (인)

위 원 한 정 훈 (인)

# 국문초록

본 논문은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특징들이 한국 정당 지지 기반의 변화를 시사하는가에 대해 규명하고자 했다. 특히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 시기에 형성되었던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왜 초래되었는지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들은 기존의 민주당 지지층과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없으며, 이들은 특히 이슈 태도의 차원에서 완전히 상이한 유권자 집단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경험적 분석의 결과, 2002년 대선을 기점으로 형성된 민주당의 지지 기반은 일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역의 지지는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오랜 시간 민주당이 강세였던 서울 지역과 2030세대, 그리고 '86세대'의 대부분이 속해있는 50대에서 이탈(dealignmnet)이 두드러졌다.

다음으로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에 투표한 '새로운 민주'는 기존의 민주당 지지층과 어떻게 차별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에 투표한 유권자 집단과 통합한 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은 이슈 태도 차원에서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민주'의 경우 민주당이 소유(own)한 이슈와 관련된 외교안보, 복지확대, 정치개혁, 환경문제가 하나의 요인으로 요약된 반면, '새로운 민주'의 경우 모든 변수가 한 개 요인에 적재되어 기존의 민주당 지지층과는 이질적인 이슈태도를 갖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장기적 이슈 소유’보다 ‘단기적 이슈 소유’가 더불어민주당 투표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에 투표했다하더라도 민주당이 장기간에 걸쳐 소유해 온 ‘대북 지원’, ‘정치개혁’ 등의 이슈가 아닌 복지확대, 세금이슈, 청년이슈 등 선거 과정에서 부각되었거나 현 정권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이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2002년 대선부터 2004년 총선 시기 동원되었던 세대와 이념적 갈등 구조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02년을 기점으로 20년 가까이 견고한 결집력을 보였던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 이슈 태도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은 유권자들의 요구가 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일시적인 정치적 유동성이 아닌 보다 구조적인 정당 체계의 재편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민주당의 미래에 제공하는 시사점은 민주당이 오랜 기간에 걸쳐 소유해 온 민주화, 반공주의, 정치 개혁을 넘어서는 새로운 이슈를 개발하고 선점해야한다는 것이다.

**주요어 : 2022년 대선, 정당지지, 정당재편성, 정당 이탈, 사회균열, 이슈태도**

**학 번 : 2019-20407**

#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문제의 제기 ····· 1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 5

제 3 절 논문의 구성 ····· 6

제 2 장 선행 연구 검토 ····· 7

제 1 절 정당 지지의 변화와 재편 ····· 7

제 2 절 사회 균열과 정당 지지 ····· 11

제 3 절 이슈와 정당 지지 ····· 16

제 3 장 연구 방법 ····· 21

제 1 절 연구 가설 ····· 21

제 2 절 분석 자료 및 대상 ····· 25

제 3 절 주요 변수 설정 ····· 27

제 4 절 분석 방법 ····· 29

제 4 장 경험적 분석 ····· 30

제 1 절 주요 사회집단별 민주당 지지 변화 ····· 30

제 2 절 ‘전통적 민주’와 ‘새로운 민주’의 이슈태도 ····· 41

제 3 절 이슈태도와 투표 선택 ····· 47

제 5 장 결론 ····· 51

참고문헌 ····· 56
Abstract ····· 66

# 표 목 차

[표 1] 민주당의 지지기반 ····· 15
[표 2] 대선 설문 자료 ····· 25
[표 3] 변수의 조작화 방식 ····· 28
[표 4] 역대 대선에서 민주당의 득표율 (서울-전국) ····· 32
[표 5] 주요 사회 집단의 민주당계 후보 선택 ····· 36
[표 6]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 42
[표 7] '전통적 민주'의 이슈 태도 ····· 43
[표 8] '새로운 민주'의 이슈 태도 ····· 46
[표 9] Hosmer-Lemeshow 모형 적합도 ····· 47
[표 10]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 이슈에 따른 투표 선택 ····· 50

# 그 림 목 차

[그림 1-1] 민주당 투표 유권자의 지역 집단별 구성(%) ····· 31
[그림 1-2] 민주당 투표 유권자의 연령 집단별 구성(%) ····· 33
[그림 1-3] 민주당 투표 유권자의 성별 집단 구성(%) ····· 34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문제의 제기

본 논문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한국 정당 지지의 변화를 이슈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하는 주요 문제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지속되어 온 한국 정당의 지지기반과 경쟁의 속성이 20년을 지나오면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왜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정당 지지의 변화 현상에 유권자의 이슈에 대한 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022년 제 20대 대통령 선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전 선거와 달랐는데,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거대 담론의 부재'이다.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선거 전체를 가로지르는 쟁점이나 의제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양대 정당 후보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네거티브 공방이 언론을 도배했다. 물론 네거티브는 역대 대선에서도 늘 존재해왔으나, 2022년 대선에서는 2002년 대선에서의 행정수도 이전, 2007년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 2012년 선거의 경제민주화, 2017년 대선에서 적폐청산과 같이 선거의 중심에 있었던 정치적인 의제나 거대 담론이 존재하지 않았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과 2004년 열린우리당의 총선 승리를 거치면서 한국 정당 정치는 기존의 지역주의 경쟁 구도에 이념, 세대 간

균열이 더해졌고, 이때 만들어진 한국적 의미의 '진보'와 '보수' 정파 간의 대립은 이후에도 지속되어왔다(강원택 2018). 이른바 '86세대'로 대표되는 진보 진영과 이들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민주당[1]은 탈권위주의와 함께 반미, 재벌·행정·검찰개혁, 경제민주화, 과거사 재조명, 최저임금 인상, 인권강화 등 다양한 의제를 제기하였고,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보수 정당의 박근혜 후보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여 '경제민주화'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후보들은 찬반이 첨예한 거대 담론보다는 지역별 혹은 특정 집단별 맞춤 공약에 치중했다. 이재명 후보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나 윤석열 후보의 '사병 월급 200만원'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거대 담론 부재'의 원인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방 행정 경험과 윤석열 후보가 정치 신인인 점을 꼽았다. 하지만 후보자 요인은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 발사를 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이슈, 대북이슈가 선거 과정에서 부각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에서 오랫동안 대립해 온 이슈인 북한 혹은 대북 이슈가 논의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는 유권자 차원에서도 이전 선거들과는 다른 특징이 발견되었다. 선거 후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령 변수가 투표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청장년층=민주당, 중노년층=보수정당'이라는 기존의 공식과는 달리 유권자들은 이념과 현 정권의 국정 운영 평가 등에 따라 투표했다(배진석 2022). 이러한 경향은 이른바 '86

1) 본 논문에서 민주당은 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민주통합당-새정치민주연합 등 더불어민주당(2022년 기준)의 전신에 해당하는 정당들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세대'의 투표 선택에서도 나타났다. 60년대에 태어나 민주화 시기인 80년대에 청년시기를 보낸 이들은 오랜 기간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었다. 그러나, 선거 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대북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보적 태도를 취하지만 부동산과 같은 생활 이슈에 대해서는 보수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진석 2022).

또한, 2022년 대선에서는 2002년 대선 이후 20년 만에 20-30 세대가 중요한 유권자 층으로 떠올랐다(데일리한국 2022/3/2). 20대와 30대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 중 30% 가까이 차지하는데, 선거 전 실시된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이들이 '지지 후보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이들의 표심 방향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2002년 대선 이후 2004년 총선에까지 20-30대 유권자 투표율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던 때와 유사한 특징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이내영 2002; Kang 2008). 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인 20대 유권자 내에서 성별에 따른 정치적 태도 차이도 발견되었다. 선거 후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각 세대 내에서 정당 지지 성향, 이념, 대선후보와 정당에 대한 호감도 등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났는지 분석한 결과, 20대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김한나 2022).

이에 본 연구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거대 담론 부재' 현상과 유권자 차원의 특징이 한국 정당 지지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 한국 정치와 선거에서 거대 담론과 쟁점을 주로 제기해 온 것은 진보 진영이다. 이런 사실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 주목한다. 이전 선거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달랐던

선거 환경에서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2017년 대선 당시 친노무현 지지층에 기반을 두었던 문재인 후보가 받은 득표율보다도 높은 득표율을 받은 것일까? 이재명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들을 기존 민주당 지지층과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있는가? 다시 말해,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는 기존의 민주당 지지층과 유사한 성격을 공유하는가?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 질문들로부터 출발하여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기반이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지속되었는지 살펴본다. 즉,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기점으로 형성·지속되어 온 한국 정당의 지지 기반이 세대적 변화와 함께 새로운 형태로 변모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본 논문의 목적은 2022년 선거에서 나타난 한국 정당 지지의 변화를 이슈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들을 기존 민주당 지지층과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이 민주당 지지층에 주목하는 두 가지 이유는 첫째,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과 '이재명 지지층'이 차별적 정체성을 가진다면, 외형적으로 정파적 양극화가 된 것으로 보이는 결과의 저변에서 재편성의 토대를 제공해줄 수 있는 유권자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 민주당 지지 기반의 해체(dealignment)라는 미시적인 움직임은 한국 정당 체계의 재편성(realignment) 논의에도 높은 적실성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재편성 논의가 특정 선거에서 지역, 이념, 세대와 같은 균열들 중 하나의 영향력이 이전에 비해 커지거나 줄어들기만 해도 재편성으로 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비록 민주당 지지 기반의 변화라는 현상이 정당 재편성으로 귀결될지의 여부는 오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둘째,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거셌던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한 지지를 드러낸 유권자들은 '전통적 민주'들과 구분되는 상이한 정체성을 갖는 '새로운 민주'의 등장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들이 민주당 내부의 새로운 핵심 지지층으로의 부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분석은 민주당 정치의 미래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최근 보수 정당과 지지자의 분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던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발생하는 변화의 흐름을 확인한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 제 3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장에서는 2022년 대선에서 발견된 이전 선거들과는 다른 특징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현상이 2002년 대선을 기점으로 형성되고 2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한국 거대 양당의 지지 기반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인지에 대해 분석해야하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제시한다.

제 2장에서는 정당 지지 기반의 변화와 재편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소개한 후, 이 논의들이 정당 지지기반의 변화에 미치는 요인을 설명한 두 가지 모델인 사회적 균열과 이슈 태도에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당지지 기반의 변화와 2022년 대선에서의 투표 선택 설명을 위한 대안적인 논의를 모색할 것이다.

제 3장에서는 본 연구의 가설 제시와 함께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분석에 사용할 자료와 변수들을 소개할 것이다.

제 4장에서는 분석의 결과 확인을 통해 3장에서 제시한 가설들의 채택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우선 최근 한국의 정당 지지기반이 실제로 변화를 보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2002년 대선부터 2022년 대선까지 주요 사회집단별 민주당지지 변화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 집단과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 집단이 서로 이질적인 정체성을 가졌는지, 특히 이 두 집단이 서로 다른 이슈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앞에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본 논문에서 규명된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함의를 서술한 후, 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결론을 마무리할 것이다.

# 제 2 장 선행 연구 검토

## 제 1 절 정당 지지의 변화와 재편

정당 재편성(partisan realignment)이론은 유권자 내에서 정당에 대한 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양당제의 전형인 미국의 정당 정치 변화를 설명하는 개념 틀로 이해되어왔다.[2] 정당재편성 이론이 재편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크게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집단의 구성에 변화가 있었는가, 그리고 정당체계에서 우위 정당(dominant party)이 바뀌었는가로 나눌 수 있다. 보통 이 두 기준이 모두 충족될 때 정당재편성으로 규정되지만, 정당지지 기반의 성분에 변화가 발견된다면, 그리고 변화가 지속적이라면 우위 정당에 변화가 없더라도 정당재편성으로 간주하기도 한다(Petrocik 1981).

정당 지지의 변화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모델을 사용한다. 먼저, 사회적 균열(social cleavage)에 초점을 맞추는 모델이다. 재편성이 이루어지면 서로 다른 사회 집단이 각 정당의 지지 세력을 구성하고(Lipset and Rokkan 1967), 이에 따라 각 정당은 균열 쟁점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입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연합을 누린다(조기숙

2) 키(Key 1955; 1959)는 정당 지지의 변화와 그에 따른 재편성을 크게 1) 급진적 재편성(critical realignment)과 2)점진적 재편성(secular realignment)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를 통해 정당 체계가 재편성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ion) 약화와 세대교체를 통해 변화가 일어나는 장기적인 과정이다.

1996). 바꿔 말하면, 정당이 새로운 쟁점에 대응하지 못할 때 유권자는 정당 지지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단기적 요인에 따라 유권자의 정당 지지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아브라모비츠와 선더스는 사회적 균열(social cleavage)에 기초한 정당-유권자 간의 연합은 서구에서 종식되었음을 주장하고, 단기적 정당 지지 변화의 설명 변수로 대통령 선거에서의 투표 선택, 회고적 평가, 이슈에 대한 선호(issue preference)를 제시했는데, 분석 결과, 이슈 선호 차이의 설명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Abramowitz et al 1999).

한편, 국내에서는 정당 지지의 변화와 그에 따른 재편(realignmnet)에 대한 연구가 제 17대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김일영(2004)은 2002년 제 16대 대선과 17대 총선에서 떠오른 세대 균열과 관련하여 기존의 지역 균열이 약화되면서 세대와 중첩되는 이념에 따른 유권자의 재정렬과 재편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이준한·임경훈(2004)은 17대 총선에서 지역주의가 완화되는 것으로 보이는 지역은 매우 제한적임을 지적하고 따라서 이 선거를 중대선거로서 볼 수는 없다고 앞선 주장을 반박하였다. 이후 정당지지 변화에 대한 연구는 이 시기에 제기되었던 지역주의 약화에 따른 정당지지 패턴 변화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는데,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세대 균열이 부활했다는 분석(이내영 2011)과 2012년 총선에서 기존 세대 균열의 핵심이었던 386세대가 소멸하고 30대 유권자가 변수로 등장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박원호 2012). 이처럼 한국의 선거경쟁은 지역 집단 간 대립 구도에서 점차 이념집단, 세대집단, 계층집단 등 더 많은 사회 집단이 포함되는 복합적 대결 구조로 바뀌어왔으며, 최근에는 양성 집단의 차이도 나타나기 시작

했고(김한나 2022), 선거 경쟁의 전선이 여러 집단으로 확산될수록 정당과 집단 사이의 연계도 훨씬 복잡해졌다. 또한, 이런 변화와 함께 교육 수준의 향상과 미디어의 확산에 따라 유권자들이 점차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이나 정체성에 영향을 덜 받기 시작했으며, 개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후보를 선택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성경륭 2016). 즉, 후보자의 자질과 집권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그리고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의 다양한 이슈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내영·정한울(2007)은 집권당에 대한 평가와 같은 단기적 이슈가 유권자의 지지를 설명하는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주장했으며, 강원택(2010)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의 유권자들의 정당지지 변화를 추적한 결과, 18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승리하지 못한 이유로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의 각료 임명을 둘러싼 논란과 공천 갈등”과 같은 단기적 이슈가 이탈에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당지지의 변화에 관한 기존 논의들이 균열 이론에 집중함에 따라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미시적인 요인들을 간과했다고 보는 선행 연구들과 문제의식을 같이한다(Dalton 1996; Abramowitz et al. 1999; 이내영·정한울 2007). 달튼과 메이휴는 사회적 균열 이론에 기초한 정당지지 분석이 균열의 동결(freezing effect)효과로 인해 단기적인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Dalton 1996; Mayhew 2004). 뿐만 아니라, 정당 체계의 재편이 일어나기 전까지 발생하는 점진적인 재편(secular realignment) 움직임을 분석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균열이론에 근거한 정당지지에 대한 분석은 사후분석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러한 한계는 최근 한국 정치에서 정당 지지의 변화가 역동적으로 일어

나는 상황을 설명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거치면서 한국의 유권자 지형이 진보 우위로 바뀌었다는 정당 재편성에 대한 주장과 함께 2017년 대선을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박원호 2018).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21년 4월에 치러진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한국 정당 정치는 단 2년 만에 다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급변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 균열과 이슈태도가 정당 지지에 미친 영향을 모두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변화와 장기적인 변화 모두를 설명하고자 한다. 물론 정당재편성이 수 십 년에 걸쳐 이뤄지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 몇 차례의 최근 선거만을 놓고 정당 재편성을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최근 유권자들의 당파성이 약화되면서 정당재편성 논의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도 등장하였다(Owen 2013). 그러나 정당 체계의 우위 정당에 변화가 없더라도 정당의 지지 기반 성분에 변화가 발견된다면 재편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페트로식(Petrocik 1981)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지역 과 반공 이데올로기 균열이 완화되고 있는 현재의 한국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여전히 정당지지 기반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정당재편성 개념은 여전히 유용한 개념틀일 것이다. 그 이유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특정 정당의 지지기반의 변화는 사회 내에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와 힘의 균형이 변화하는 것이며, 단순히 유권자들의 투표 선택뿐 아니라, 유권자들의 정치적 정향의 변화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유권자들이 점진적으로 정렬하는 점진적인 재편성(secular realignment)단계에 놓여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 제 2 절 사회 균열과 정당 지지

립셋(Lipset)과 록칸(Rokkan)은 정당 체계의 형성과 발전을 역사적으로 중대한 변화에 의해 생겨난 사회 균열에 주목하여 설명하였다. 유럽의 국민혁명(national revolution)이 초래한 '중심부-주변부', '정부-교회' 균열, 그리고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도시-농촌', '고용주-노동자' 균열이 각 국가의 정당들을 발전시키고 정당 체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Lipset and Rokkan 1967). 다시 말해, 각 정당의 지지기반은 사회 내의 균열 구조에 기초해 있는 서로 다른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노동당은 노동 계급이, 보수당은 중산층이 지지 기반이며, 정당 체계의 발전 경로가 유럽과 다른 미국의 경우에도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기반은 남북전쟁이나 대공황을 거치면서 형성된 사회 균열에 기초하고 있다(Dalton 1996).

썬키스트(Sunquist 1973)는 갈등 대체(conflict displacement) 개념을 활용하여 새로운 쟁점들이 기존의 쟁점들을 대체하면서 유권자들의 균열 구조를 변화시킨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새로운 쟁점이 다수의 유권자들에 영향을 미칠 때 정당재편성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정당 해체가 반드시 정당재편성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재편성의 기본적인 원인은 새로운 균열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정당에 있으며, 유권자들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탈한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지지 기반의 변화는 정당재편성을 야기하는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한다. 미국 정당의 경우 남북전쟁과 1930년대의 대공황과 같은 중대한 변화들을 거치면서 형성된 지역이나 인종 등 사회 균열에 기반한 지지 기반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근대 국민국가로의 이행이 서구의 경

로와 달리 2차 대전의 종식 이후 민주주의가 외부에 의해 도입되었기 때문에 사회 균열이 정당 체계에 반영될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었다.(김만흠 1994; 박상훈 2013). 한국 전쟁 이후 한국 사회의 갈등은 집권 세력과 이에 대항하는 세력 간의 대립으로 나타났으며, 야당은 민주화를, 여당은 안정을 유권자에게 호소하였고, 이른바 여촌야도의 구도가 등장하였다(조중빈 1993). 민주화 이후에는 기존의 균열이 사라진 공간에 지역주의 균열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2002년 대선을 기점으로 이념 집단 및 세대 집단 간의 균열로 다원화되기 시작하였다(김주찬·윤성이 2003; 최준영, 조진만 2005; 박명호 2009). 이러한 지역, 이념, 세대 균열 구조는 현재까지도 한국의 정당 지지기반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엑슬로드(Axelrod 1986)는 1968년부터 1984년 사이에 실시된 총 다섯 차례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네 번 승리한 선전에 각 정당의 지지기반의 특성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그는 1952년부터 1984년 사이의 미국 대선 분석을 통해 정당의 지지기반을 구성하는 사회 집단들이 선거 결과에 기여한 정도를 집단의 크기, 투표율, 정당 충성도(loyalt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저소득층, 흑인, 노동자 계층, 기독교 및 유대교도, 남부지역, 대도시 거주자들 가운데 특히 선거 기여도가 높았던 흑인과 저소득층, 대도시 거주자들의 민주당에 대한 정당 충성도는 높지만 집단의 크기가 전체 유권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반면, 공화당의 경우 그들의 지지집단인 고소득층, 백인, 개신교도, 북부 거주자 등은 정당에 대한 충성도뿐 아니라 집단의 크기도 큰 집단이었다는 것이 공화당 우위체계를 만든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다. 1930년대 초 뉴딜(New Deal) 연합의 형성 이후 40여 년간 민주당의 주요 지지기반은 노동자-남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 인종문제와 관련하여 공화당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남부 백인들의 지지가 감소하게 되었고, 이탈한 흑인들이 새롭게 민주당으로 편성된 것이 미국 정당체계의 변화와 관련한 중요한 현상인 것이다.(Axelrod 1986; Stanley and Niemi 1995). 만자와 브룩스(Manza and Brooks 1997)도 196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의 공화당 우위체계의 원인으로 당시 민주당의 지지기반에서 선거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흑인 집단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을 지적하면서, 결과적으로 뉴딜연합 시기에 형성된 민주당 우위의 정당체계에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당의 지지 기반과 관련된 국내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젊은 세대 및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은 개혁 혹은 진보를 표방하는 새천년민주당을 지지하고, 기성세대 혹은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은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정당지지 패턴이 1990년대 중반부터 나타났다(강원택2004; 이준한·임경훈 2004). 최효노(2003)는 1987년 대선에서 1997년 대선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의 지지기반은 남성, 2030세대, 호남·수도권, 농어업·블루칼라 계층·대학생으로 구성된 반면 한나라당 계열 정당의 지지기반은 여성, 4050세대, 영남·강원, 화이트칼라 계층과 가정주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지지기반은 15년 가까이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02년에 치러진 16대 대선에 들어서서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계층의 지지 이탈이 일어났으며, 인구 감소로 인해 호남 지역이 민주당 지지 기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과 비슷한 정도로 낮아졌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성경륭(2016)은 민주화 이후 실시된 4번의 대선(1992년 대선~2012년 대선)에서 주요 사회 균열들의 변화 양상이 정당의 지지기반으로 편성되어가는 과정을 분석한 결과, 일관된 차이를 보이는 균열은 지

역과 이념임을 확인했다. 또한, 2002년 대선을 기점으로 2030세대가 일관되게 민주당을 더 많이 지지하는 것을 발견함에 따라 세대 균열이 정치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진보-보수의 이념적 분화가 나타나는 서구의 경험과는 달리 세대와 교육 수준을 중심으로 이념의 분화가 나타나 젊고 고학력일수록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나이가 많고 저학력일수록 보수적 이념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강원택 1998; 이내영 2002) 특히, 2002년 대선 당시 30대는 '노사모[3]'를 주도했을 뿐 아니라 한국의 정치 지형을 '지역의 정치'에서 '세대의 정치'로 대체했다고 평가받는다. 이른바 '86세대'로 불리는 이 집단은 대북·안보 문제, 경제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가장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에도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으로 대표된다(정진민 2002; 이내영 2002; 강원택 2003). '86세대'의 진보성이 2007년, 2012년, 2017년 대선을 거치면서 변함없이 동질적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적인 가운데(강원택 2008; 박원호 2012; 이내영·정한울 2013), 다른 세대들에 비해 상대적 진보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연구들이 다수 제시되었다(노환희 2013; 오세제 2015). 뿐만 아니라,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요직에 포진해 국정운영을 주도함에 따라 '86세대'는 최근까지도 민주당 내부의 세력과 지지기반을 대표한다고 평가받았다(중앙일보 2018/5/8). 요약하면, 2002년 대선을 계기로 민주당 지지 기반의 외연은 호남에서 수도권·호남으로, 진보에서 진보·중도 이념으로 확장되었으며, 저학력자에서 고학력자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지지

3) '노사모'는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줄임말로 2000년 4월 치러진 제 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부산에서 출마한 노무현이 낙선하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청장년층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인터넷 커뮤니티이자, 한국 최초의 정치인 팬클럽이다.

기반은 2017년 대선에서도 비교적 견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표 1>의 후기 연합을 '전통적 민주' 지지층으로 간주하고, 이후 분석을 통해 민주당 지지 기반의 변화가 발견된다면 해당하는 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한 유권자들을 '새로운 민주'로 간주할 것이다.

<표 1> 민주당의 지지기반

| 초기 연합 (1987년~1997년 대선) | **후기 연합 (2002년 대선~)** |
|---|---|
| 호남, 진보, 2030연령, 중졸이하<br>저학력, 여성, 기독교, 중간층 | 호남·수도권, 중도·진보, 2030연령,<br>대재이상, 남성, 중간층 |

* 출처: 성경륭(2016)의 논문에서 인용

## 제 3 절 이슈와 정당지지

앞 절에서 다룬 사회적 균열에 기반을 두고 정당에 대한 지지 혹은 유권자의 투표 선택을 설명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선거마다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4]들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정당들의 공약과 유권자의 대응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송진미 2022). 이에 따라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의 영향이 줄어들고, 특정한 이슈들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나 후보자 이미지 변수와 같은 단기적인 요인들이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등장하였다(Dalton 1996; Abramowitz et al. 1999; 강원택 2010). 예컨대, 달튼(Dalton)은 미국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 약화에 따라 후보자의 이미지나 이슈 등 단기적인 요인들에 주목해야 함을 지적하였으며, 이슈를 위치 이슈(position issue), '성과이슈 혹은 합의이슈(performance issue or valence issue)'로 구분하였다(Dalton 1996). 메이휴(2004)는 기존의 논의들이 사회 균열 구조에 따른 재편성 이론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단기적인 선거의 변동성을 간과하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Mayhew 2004). 국내 연구로는 이내영과 정한울(2007)이 이슈가 정당 지지의 철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에서 메이휴와 달튼이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정당지지패턴의 변화를 설명할 이론적 자원을 제공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에서도 이슈투표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한편, 유권자들의 이슈에 대한 태도가 당파적 편향(partisan bias)에 영향을 받는다는 경험적 연구들도 제기되었다(Green et al. 2008; 박원호·신화용 2014; 허석재 2014). 일반적으로 유권자 수준의 설문조사에서

4) 이슈(issue)의 정확한 번역은 쟁점(爭點)이지만, 단어가 가진 '서로 다툰다'는 의미보다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단어인 "이슈"를 그대로 사용했다.

이슈태도를 측정하는 설문항으로 보통 '다음의 각 정책에 대해서 귀하께서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와 같은 질문이 사용되는데, 이에 대한 응답에 응답자의 정당일체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정당일체감은 특정 정당에 대해 유권자가 느끼는 심리적인 애착심으로, 정치 사회화 과정에서 한번 형성되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는 특성을 갖는다(Campbell et al., 1960). 이렇듯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정당일체감은 유권자의 투사와 설득의 방식으로 이슈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투사란 유권자가 자신의 이슈 선호를 지지하는 정당에 반영하는 것이며, 반대로 설득은 지지하는 정당의 입장에 따라 본인의 이슈태도를 수정하는 것이다(Berelson et al., 1954). 즉, 이슈 투표를 하는 유권자가 합리적인 유권자가 아닌, 합리화하는 유권자(rationalising voters)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이슈 태도 변수는 내생성의 문제(endogeneity bias)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Brody and Page, 1972; Lodge and Taber 2013; 장기영·박지영 2018).

그러나 사회 이슈는 끊임없이 새롭게 등장하고 그 내용 또한 다원화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이슈 태도는 기존의 사회 균열 구조에서 비롯된 정당일체감과는 별개로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령,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오랜 지지기반인 호남지역에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보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았던 것도 호남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대한 정당일체감보다 장기간에 걸쳐 내면화된 가치에 따라 이슈태도(혹은 정책 선호)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지병근 2014). 2012년 대선을 분석한 또 다른 연구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새누리당에 강한 정당일체감을 보이는

5060세대와 저학력층, 그리고 영남과 강원 지역 유권자들은 모두 강한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30세대와 대학 재학 이상의 고학력층, 그리고 호남 지역 유권자들 중 민주통합당에 강한 일체감을 보이는 집단은 호남 지역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2002년 노무현 당선과 함께 학창시절을 보냈던 지지층은 당시 노무현이 제기한 대북, 반미, 반권위주의 등 이슈에 대한 지지로서 민주당을 지지해온 것이지 특정 정당을 '우리 당'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지속되어 민주당에 투표한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슈 태도가 다차원적이고 이질적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장승진 2016; 송진미 2019). 예컨대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확보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대북 지원 확대에 반대하는 유권자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정당 지지에 대한 이슈 태도 요인의 영향력을 이슈소유(issue ownership)의 논의에서 찾고자 한다(Budge and Farlie, 1983; Petrocik, 1996; Stubager, 2018). 이슈 소유란 특정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당의 능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판으로, 다른 정당보다 특정 이슈를 더 잘 성취할 것으로 인식되는 하나의 정당이 그 이슈를 소유(own)한다고 할 수 있다(Petrocik 1996). 어느 한 정당이 특정 이슈를 소유하게 되면, 이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큰데(Budge and Farlie, 1983),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된다. 첫 번째 설명은 앞 절에서 논의한 사회 균열과 관련이 있다. 립셋과 로칸에 따르면 정당의 기원은 사회 균열에 있다. 즉, 정당은 자신들이 만들어지게 된 균열과 관련된 이슈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 소유가 장기간에 걸쳐 유지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정당의 지지기반과 관련된 설명으로, 정당의 지지 기반은 (사회 균열로 이

루어진 집단이든 아니든) 특정 사회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정당은 그 집단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슈들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슈 소유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다(Petrocik 1996).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송근원(2006)은 2002년 대선에서 각 후보와 연관된 이슈가 이회창 후보는 생활 환경 및 교육정책, 노무현 후보는 정치행정 개혁임을 밝히고, 유권자들도 자신의 입장과 일치하는 후보에 투표하는 경향이 높았음을 밝혀냈다. 다시 말해, 대북 지원과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는 유권자일수록 노무현에 투표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유권자일수록 이회창에 투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2002년 대선을 기점으로 대북 지원, 반미, 탈권위주의, 인권 강화 등의 이슈는 지속적으로 민주당이 소유(own)해왔다.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3년 출판한 저서에서도 '민주, 인권, 평화, 복지, 연대 등의 가치는 민주당이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최효노 2018). 이렇듯 특정 정당의 이슈 소유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선거마다 새로운 이슈가 부상함에 따라 소유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으며, 경쟁 정당이 소유하고 있던 이슈를 뺏어오려는 시도도 이루어진다(Holian 2004; Bellucci 2006). 스투바거(Stubager 2018)는 이를 장기적 소유와 단기적 소유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으며, 실험설문을 통한 분석에서 유권자들이 이슈를 잘 해결할 정당을 비교적 최근의 상황을 기반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송진미(2020)는 이러한 단기적 소유를 이슈선점으로 표현해 (장기적) 이슈 소유와 구분하였다.

정리하자면, 균열 이론은 사회적 구조가 전제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변화하는 각 선거의 특징과 맥락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슈 태도에 주목하는 것

은 그 의의가 명확하다. 또한, 스투바거의 ‘장기적 이슈 소유’와 ‘단기적 이슈 소유’ 개념을 분석틀로서 활용하는 것은 사회 균열에 기초한 장기적인 이슈와 단기적으로 선거마다 부각되는 이슈의 영향력 모두를 설명할 이론적 자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 제 3 장 연구 방법

## 제 1 절 연구 가설

본 연구는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 집단과 이들의 이슈 태도에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을 경험 분석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특징이 한국 정당지지의 변화를 시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특히,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에 투표한 유권자와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에 투표한 유권자가 이슈 태도의 측면에서 완전히 상이한 유권자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대통령 선거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서 정당 체계의 변화를 살펴봄에 있어 다른 종류의 선거보다 유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대체로 큰 이슈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부각되는 선거는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첫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2022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였던 이재명에 투표한 유권자들은 2002년 이후 실시된 선거들에서 민주당의 후보들에게 투표한 유권자들과 사회 집단의 차원에서 동질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 선거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정치적 균열과 관련한 사회 집단인 지역집단, 이념집단, 세대집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1-1.> 호남 지역의 유권자들은 2022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을 것이다.

<가설 1-2.> 진보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은 2022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을 것이다.

<가설 1-3.> 2022년 대선에서 젊은층(2030연령)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노년층(60대 이상)은 국민의힘을 지지했을 것이다. - (연령효과'aging effect')

<가설 1-4.> 2022년 대선에서 '86세대'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을 것이다. - (세대효과 'generational effect')

두 번째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2017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였던 문재인에 투표한 유권자들은 2022년 대선에서 같은 정당의 후보였던 이재명에 투표한 유권자들과 상이한 이슈 태도를 보일 것이다. 2022년 대선에서는 두 정당의 후보가 모두 정치적 아웃사이더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치 관련 이력이 전혀 없는 인물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중앙 정치 경험이 없는 당내 비주류였다. 다시 말해, 민주당에 정당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이재명을 민주당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후보로 인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 자신도 캠페인 기간 내내 "이재명의 민주당은 다를 것"이라며 기존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였으며, 시장을 존중해야 한다", "지금 군사독재 시절과 다르지 않아" 등의 발언으로 문재인과 자신을 차별화했다(문화일보 2021/12/31; 조선일보 2022/3/5).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북한과 재벌에 대한 입장 차별

화이다. 이재명 선거 캠프의 실용외교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잘못에 할 말 하는 실용 외교’, ‘한미동맹이 기본 좌표’ 등을 언급했다(신동아 2022/3/7). 또한, 이재명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살찐 고양이법’[5]을 두고 “결국 ‘삼성전자 몰락법‘, ‘시진핑 미소법’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연합뉴스 2022/2/14).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전신 정당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던 대북지원 확대, 재벌개혁 등의 정책적 지향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며, 이재명 후보가 기존의 민주당이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이슈를 뺏어오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재명 투표자는 스투바거(Stubager 2018)의 분류에 따라 장기적 이슈 소유보다는 단기적 이슈 소유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1장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거대 담론‘이 제시되지 않았던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와 수요자인 유권자 양방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대선을 앞두고 공개한 ‘제20대 대선 유권자 10대 핵심의제’는 ‘집값 안정’, ‘일자리 창출’이 각각 1, 2순위로 선정되었으며, ‘저출산 대책마련’, ‘자산·소득불균형 완화’, ‘청년대책 마련’ 등 삶과 관련된 의제들이 대부분이었다(매일신문 2022/1/4). 뿐만 아니라, 전경련에서 실시한 ‘사회·경제 주요 키워드 설문조사’에서도 사회 분야의 핵심 이슈로 ‘부동산 가격 폭등’과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종부세 등 ‘세금 부담 증가’가 꼽힌 것으로 나타나 유권자들 사이에서 선호되는 이슈들은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깊은 것이었다. 한편,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패배 이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에 ‘국민의 일상적인 삶을 개선하는 작은, 실천

5) ’살찐 고양이법’은 국회의원 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의 5배, 공공 부문임원은 10배, 민간기업 임원은 30배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인 민생 개혁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이는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민주당이 중요하게 제시해 온 '정치개혁', '북한지원' 과 같은 이슈와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서울경제 2021/4/20). 이렇듯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에 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던 2022년 대통령 선거의 맥락과 선거 후 설문조사에서 이재명 투표자의 경우 소속 정당이나 이념을 보고 투표했다는 응답이 각각 5.9%, 4.5%에 그쳤고, 후보의 능력과 경력을 중시했다는 응답이 63.1%로 매우 높았던 점도 아래의 가설에 설득력을 더한다.

<가설 2-1.> '문재인 지지층'과 '이재명 지지층'의 이슈 태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이재명 지지층'의 투표 선택에는 '장기적 이슈 소유'에 비해 '단기적 이슈 소유'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 제 2 절 분석 자료 및 대상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본 연구는 2002년 16대 대선부터 2022년 20대 대선까지 총 다섯 차례의 대통령 선거 직후 실시된 설문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 2>에 정리한 것처럼, 16대부터 18대 대선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서 수행한 자료를 활용하고, 19대 대선은 한국정치학회가 주관하고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서 수행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20대 대선은 동아시아연구원에서 대선 전, 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응답자 수는 각 선거마다 상이하나 최소 1,000명에서 1,200명 사이이며, 표집방법은 다단계 층화표집방법과 비례할당 표집이 사용되었다.

<표 2> 대선 설문 자료

| 대선<br>(연도) | 주관 기관<br>(수행기관) | 조사 기간 | 응답자 수 | 표집방법 |
|---|---|---|---|---|
| 16대<br>(200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br>(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 2002.12.20.<br>- 12.27. | 1,005명 | 다단계<br>층화표집 |
| 17대<br>(200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br>(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 2007.12.20.<br>-12.24. | 1200명 | 다단계<br>층화표집 |
| 18대<br>(201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br>(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 2012.12.20.<br>-12.15. | 1200명 | 다단계<br>층화표집 |
| 19대<br>(2017) | 한국정치학회<br>(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 2017.5.11.<br>-5.24. | 1200명 | 비례할당 표집 |
| 20대<br>(2022) | 한국리서치<br>(동아시아연구원) | 2022.3.10.-<br>3.15. | 1104명 | 비례할당 표집 |

또한, 본 연구는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집단과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집단으로 구분한 유권자들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이는 정당 지지의 변화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과 다른 점인데(정한울, 이내영 2009; 김진주 2019), 이들의 연구와 같이 '고정-이탈' 유권자들로 분류한 집단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전 선거 당시 투표권이 없었거나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들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 한국 정당 정치의 지지 기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제 3 절 주요 변수 설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종속변수로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 혹은 '투표 선택(vote choices)'을 사용하였다(Petrocik 1987; Carmines and Stanley 1992). 그러나 본 연구는 특정 정당 혹은 정당의 후보가 선거에서 어떤 사회 집단으로부터 표를 얻었는지, 또 어떤 유형의 이슈가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관련하여 지지 기반을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17대 대통령선거부터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계열 정당의 후보에 투표한 경우 '1'로, 보수 정당 후보에 투표한 경우 '0'으로 코딩하고, 매 선거마다 기타 정당에 투표한 경우, 투표하지 않은 경우, 무응답 등은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력, 이념, 소득, 거주지역 및 이슈 태도 변수를 사용하였다. 우선, 이슈 태도는 이슈중요도로 측정하였으며 사용항 설문항은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이다.

요인분석의 독립변수는 이슈 태도이며, 2017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문재인에 투표한 유권자와 2022년에 이재명에 투표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2022년 대선 이후 실시한 서베이데이터에 포함된 다양한 정책 이슈들에 대한 문항을 사용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이슈 태도들이 몇 개의 요인으로 요약되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이슈 태도 변수를 독립변수로 두고, 그 밖에 선거 연구에서 정당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예: 성별, 연령, 학력, 이념, 소득, 거주 지역)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변수의 조작화는 <표 3>과 같다.

<표 3> 변수의 조작화 방식

| 주요 변수 | 조작화 |
|---|---|
| **종속변수** | |
| 투표 정당 | 민주당 계열=1, 보수정당=0 |
| **독립변수** | |
| 이슈 태도 | 전혀 중요하지 않음=1, 보통=5, 매우 중요=10<br>(0~10까지 총 11점 척도) |
| 성별 | 남성=1, 여성=0 |
| 학력 | 고졸이하, 대재이상 |
| 지역 |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br>부산/울산/경남, 강원, 7개의 가변수 (기준변수: 서울) |
| 연령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5개의 가변수<br>(기준변수: 20대) |
| 주관적 이념 | 진보, 중도, 보수 3개의 가변수 (기준변수: 중도) |
| 소득 | 하위, 중위, 상위 3개의 가변수 (기준변수: 중위) |

## 제 4 절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에 투표했던 유권자들과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에 투표한 유권자 간에 상이한 정체성과 이슈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민주당 지지 기반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같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 간 이질성이 발견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요인분석과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한다. 우선 2017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문재인에 투표한 유권자 집단과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투표한 집단을 통합하고, 이들의 이슈 태도 변수를 측정하는 문항들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다. 분석을 통해 2017년 대선과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에 투표한 유권자들의 이슈 태도가 몇 개의 이슈로 요약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2017년 대선과 2022년 대선에서 각각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에 투표한 집단을 나눈 뒤 같은 방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다.

요인분석을 통해 2017년 문재인 투표 집단과 2022년 이재명 투표 집단 간 이슈태도의 명확한 차이가 발견된다면,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투표에 어떠한 이슈가 영향을 미쳤는지,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22년 대선에서의 투표 선택(이재명 투표=1)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그 밖에 선거연구에서 정당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예: 성별, 연령, 학력, 이념, 소득, 거주지역)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 제 4 장 경험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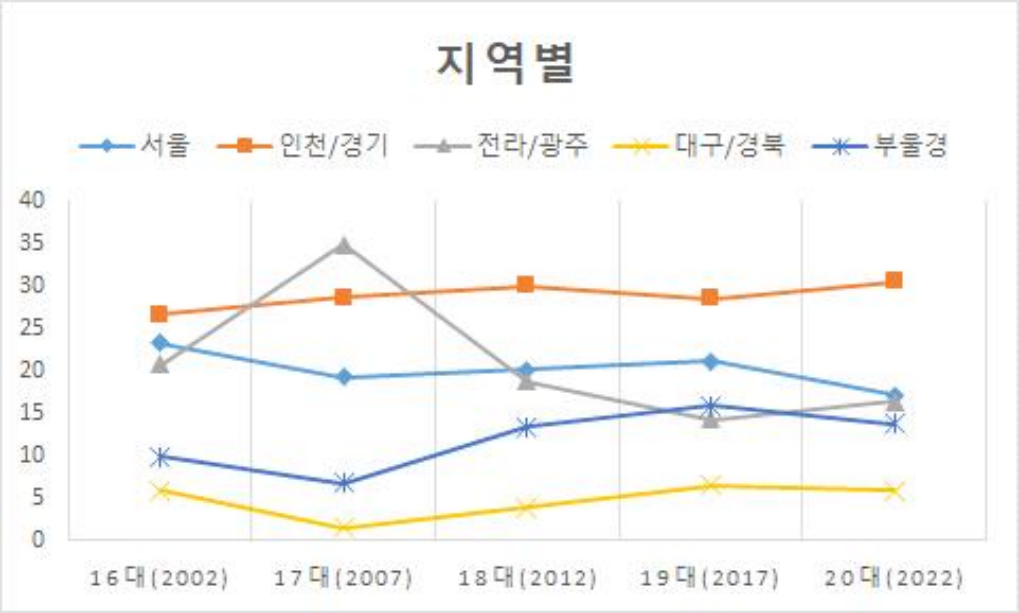
## 제 1 절 주요 사회집단별 민주당 지지 변화

이 절에서는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에 어떠한 이슈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가를 검증하기에 앞서 최근 기존의 정당 지지기반이 실제로 변화를 보였는지, 또한 그 변화의 양상은 어떠한지를 살펴볼 것이다.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2002년 대선을 기점으로 민주당의 지지기반은 '2030-수도권·호남-진보·중도-대학졸업-남성'으로 구성되어왔다(성경륭 2016). 그렇다면, 이러한 민주당의 지지 기반은 최근 치러진 선거인 2022년 대선에서도 유지되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림 1-1,2,3>과 같이 2002년 대선부터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에 투표한 유권자들의 사회 집단별 구성(composition)을 살펴보았다.[6] 우선, 지역에서 가장 큰 변화는 호남 집단의 비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집단의 경우에는 기울기가 작기는 하지만 오름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흥미롭다.

---

6) 사회 균열을 구성하는 하위집단들의 투표 경향을 보다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선거별로 집단의 크기와 투표 참여율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지만 (Axelord 1972; Manza and Brooks 1999), 공식적으로 집계된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선거별로 민주당에 투표한 유권자 전체 중 하위 집단의 구성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그림 1-1,2,3>는 어떤 하위 집단이 민주당의 지지기반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에 있어 연속성을 보여주는 일차적인 자료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림 1-1> 민주당 투표 유권자의 지역 집단별 구성(%)




우선, <그림 1-1>을 살펴보면 지역에서 가장 큰 변화는 호남 집단의 비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집단의 경우에는 기울기가 작기는 하지만 오름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흥미롭다. 미국 뉴딜연합 시기에 형성된 민주당 우위의 정당체계에 변화가 온 이유로 민주당의 주요 지지기반이었던 흑인 집단의 크기가 작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한 만자와 브룩스(Marnza and Brookes 1997)의 주장처럼 학업과 취업, 결혼 등의 이유로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에 의해 호남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호남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참여율와 정당일체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의 크기가 작다는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주요 지지 기반의 이러한 특성이 뉴딜연합 시기에 형성되었던 민주당 우위의 정당체계에도 집단의 크기가 작은 흑인들이 변화를 가져온 것과 같이 앞으로도 민주당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22년 대선에서 전통적으로 민주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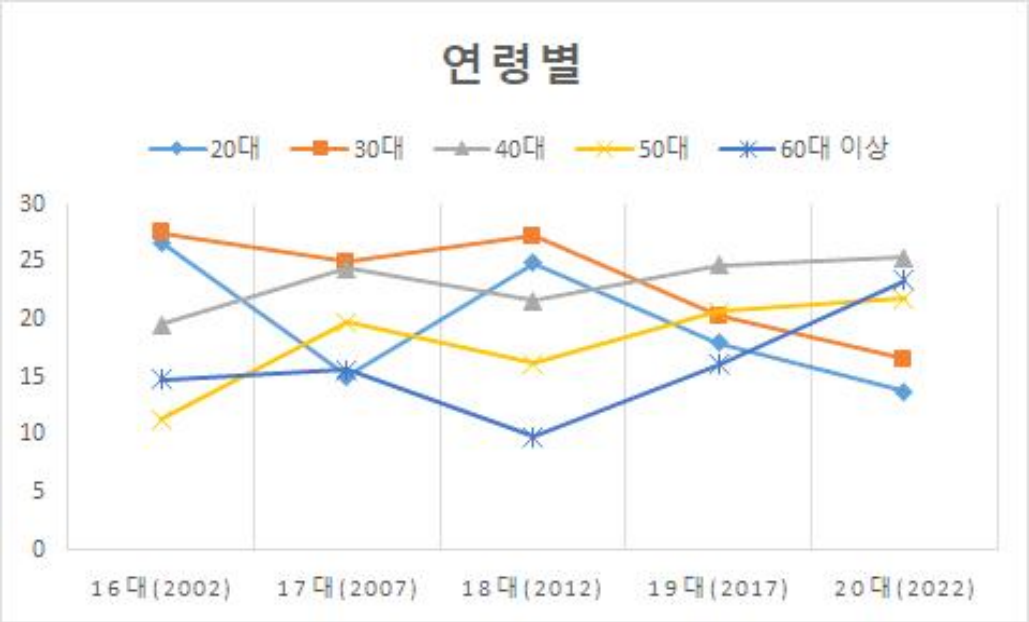
이 강세였던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뒤진 것이 또 다른 특징이다. <표 4>에서 보듯이 역대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는 선거의 결과와 관계없이 전국 득표율보다 서울에서 더 많은 득표를 했다. 이명박의 앞도적인 승리로 끝이 난 2007년 대선을 예외로 한다면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 간 격차가 불과 0.73%밖에 나지 않은 2022년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전국 득표율보다도 낮을 뿐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에도 뒤졌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역대 대선에서 민주당의 득표율 (서울-전국)

| 대선(연도) | 후보자 | 서울 | 전국 |
|---|---|---|---|
| 15대(1997) | 김대중* | 44.9 | 40.3 |
| 16대(2002) | 노무현* | 51.3 | 48.9 |
| 17대(2007) | 정동영 | 24.5 | 26.1 |
| 18대(2012) | 문재인 | 51.4 | 48.0 |
| 19대(2017) | 문재인* | 42.3 | 41.0 |
| 20대(2022) | 이재명 | 45.7 | 47.8 |

* 당선자

<그림 1-2> 민주당 투표 유권자의 연령 집단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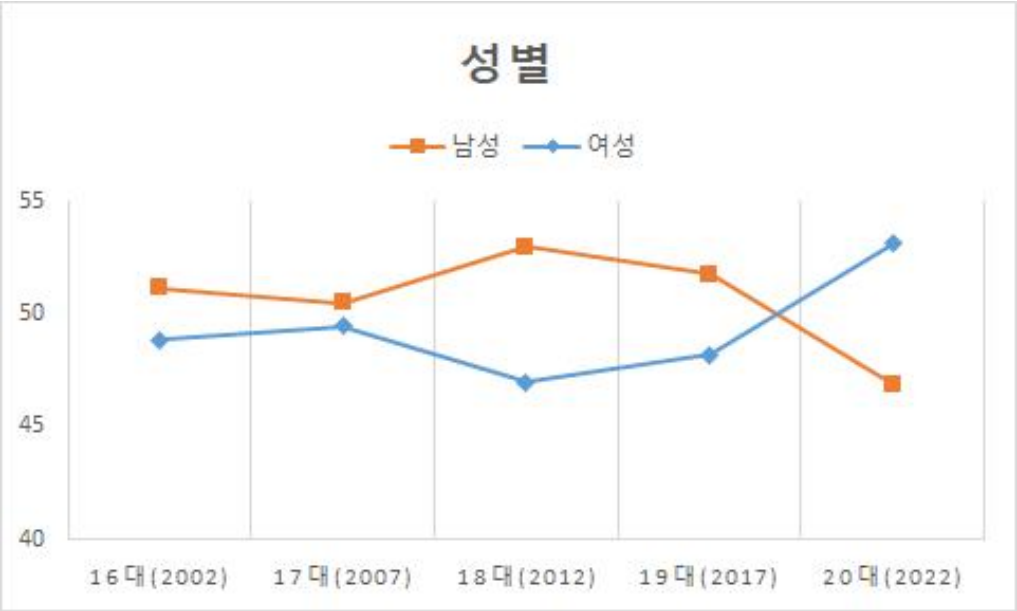



<그림 1-2>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변화는 2012년을 기점으로 2022년 대선까지 10년에 걸쳐 연령효과(aging effect)가 사라져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연령효과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직업을 가지거나 가족을 부양하고, 은퇴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성숙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이 과정에서 젊은 세대에 비해 나이든 세대가 보수적인 이념적 성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Erikson and Tedin 2005). 특히,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들의 연령대별 구성을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집단이 '40대'이고 '60대 이상'과 '50대'가 그 뒤를 따른다.[7] 이는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가장 진보적이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보수화된다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정반대의 결과이다(이남영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국내 선거인명부에 따르면 2022년 대통령선거의 유권자 연령대별 분포는 50대(19.5%) - 40대(18.5%) - 60대(16.4%) - 30대(15.1%) - 20대(14.9%) - 70대 이상(13.4%) - 18~19세(2.2%) 순이다.

2002; 강원택 2003). 2022년 대선에서 '60대 이상' 유권자수가 2017년 대선에 비해 늘었으나, 2017년과 2012년 대선 당시에도 '60대 이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민주당에 투표한 유권자들 중 40대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는 클 것이다. 바꿔 말하면, 2002년 대선을 기점으로 형성된 민주당의 지지기반에 2030세대 집단이 포함되었던 것은 젊은 세대의 진보적 성향을 의미하는 연령효과가 아닌, 성년 초기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겪은 특정 세대가 다른 세대와 뚜렷이 구별되는 정치적 태도를 가지는 것을 설명하는 세대효과(generation effect)였던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Mannheim 1952).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당시 청, 장년 시기를 보냈던 유권자들은 개혁에 우호적인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었고, 이때 비롯된 정치적 정향과 정당일체감이 나이가 들더라도 유지되는 것이다.

<그림 1-3> 민주당 투표 유권자의 성별 집단 구성(%)



마지막으로 <그림 1-3>의 성별 집단 같은 경우, 2022년 대선을 기점으로 처음 발견된 역전 현상이기 때문에 이를 한국 정당 지지기반의 구조적인 변화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기존의 한국 남녀 유권자의 투표 선택은 미국의 여성 유권자들의 민주당 지지 경향과는 반대의 양상을 나타냈다. 립셋(Lipset)은 이와 관련하여 가정주부의 경우 자신과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보수적인 문화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으며, 알몬드와 버바(Almond and Verba 1965)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정치에 관심이 없고 보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사회에서 겪는 불평등에 대한 인식 등이 생겨나면서 미국 여성들의 민주당 지지율은 높아졌다. 즉, 여성 경제 활동 인구의 증가, 교육 수준 향상 등의 이유가 미국 여성 유권자의 민주당 지지의 요인이 된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의 경우에도 가사분담, 자녀양육, 부모돌봄, 징병제, 그에 다른 취업 기회의 차이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양성 균열은 앞으로도 커질 가능성이 충분하며, 성별 집단 또한 한국 정당의 지지 기반의 한 부분을 담당할 집단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2022년 대선 서베이 분석을 통해 20대 유권자 내에서 남녀의 정치적 태도 차이를 보고한 김한나(2022)의 주장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다음으로 한국 선거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균열에 관한 가설 검증을 위해 주요 사회 집단만을 포함시킨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표 5>에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 16대 대선에서 20대 대선까지 20년에 걸쳐 유권자들의 투표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지역과 이념이다. 계수의 값도 클 뿐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5> 주요 사회 집단의 민주당계 후보 선택(2002-2022년 대선)

| 설명변인 | 16대 (2002) | 17대 (2007) | 18대 (2012) | 19대 (2017) | 20대 (2022) |
|---|---|---|---|---|---|
| 성별 (남자=1) | 0.056 | -0.025 | 0.048 | -0.365 | -0.183 |
| 학력 (대학 이상=1) | -0.024 | -0.394 | 0.251 | 0.477 | -0.076 |
| 인천/경기 | 0.211 | 0.216 | 0.301 | -0.692 | -0.358 |
| 대전/충청 | 0.238 | -0.019 | 0.341 | 0.122 | -0.100 |
| 전라/광주 | 4.595*** | 2.461*** | 3.234*** | (empty) | 1.683*** |
| 대구/경북 | -1.293*** | -2.051** | -1.220*** | -1.337** | -0.858 |
| 부산/울산/경남 | -1.129*** | -0.994** | -0.085 | -1.081** | -0.232 |
| 강원 | -0.133 | (omitted) | 0.485 | -1.152 | 0.243 |
| 30대 | -0.595** | -0.091 | -0.292 | -0.418 | -0.095 |
| 40대 | -0.914*** | -0.243 | -0.905*** | -0.535 | 0.236 |
| 50대 | -1.100*** | -0.047 | -1.000*** | -1.111 | -0.256 |
| 60대 이상 | -1.027*** | -0.290 | -1.583*** | -2.172** | -0.826** |
| 주관적 이념(진보) | 0.860*** | 0.364 | 1.420*** | 1.593*** | 2.024*** |
| 주관적 이념(보수) | -1.027*** | -0.943*** | -1.450*** | -2.250*** | -1.658*** |
| 소득(하) | 0.342 | -0.740** | -0.145 | -0.051 | -0.348 |
| 소득(상) | -0.056 | -0.009 | -0.210 | 0.018 | -0.150 |
| 상수 | 0.998*** | -0.266 | 0.728* | 3.026*** | 0.759 |
| N | 1,184 | 656 | 1,003 | 600 | 941 |
| Pseudo R-squared | 0.244 | 0.239 | 0.321 | 0.488 | 0.310 |

*** p<0.001, **p<0.01, *p<0.05

우선 지역의 경우, 서울 거주 유권자를 기준으로 호남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은 민주당 후보에 대한 일관된 (+)투표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가설 1-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반대로 영남 지역 유권자들은 민주당 후보에 비우호적인 선택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남 지역과 호남 지역 모두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방향성은 유지하되 계수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으며, PK(부산/울산/경남)지역의 경우 18대, 20대 대선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2012년 이후 선거 결과를 토대로 대구, 경북 지역이 여전히 강한 지역주의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에 비해 PK 지역의 국민의힘(구 한나라당) 계열 정당에 대한 지지 이탈(dealignment) 추세를 지적한 여러 선행연구들과 일맥상통한 결과이다(정재도, 이재묵 2018; 강원택 2019). 특히, 2022년 대선에서 대구/경북 지역의 영향력이 음의 방향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은 이례적인 결과이다. 여러 선행 연구에 의해 PK 지역 유권자들의 유동성이나 정파적 성향으로부터의 이탈(dealignment)은 경험적으로 밝혀진 바 있으나(강원택 2019), 그에 비해 대부분의 연구에서 대구/경북 지역은 보수 정당 지지 혹은 후보 투표 선택에 강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경북 안동이 고향인 이재명 후보가 자신이 민주당 최초의 TK 출신 대통령 후보임을 내세우기도 했으나, 후보자 고향 요인으로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분석은 2022년 대선 이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번 대선은 지난 대선에 비해 지역주의가 약해졌다”라는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0-10점)를 묻는 문항에 대해 PK지역 유권자가 4.46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그 뒤를 대구,경북 지역(4.30)이 이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지역과 관련된 한국 선거

에서의 균열의 본격적인 변동 가능성을 주장한 최근의 선행 연구들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정재도, 이재묵 2018). 이념의 경우 자신이 중도 성향이라고 응답한 유권자를 기준으로 진보 성향의 유권자가 민주당에 대한 일관된 투표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 1-2가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변수는 세대 변수이다. 우선, 60대 이상 변수에서 민주당 후보에 대한 투표의 영향력이 음(-)의 방향으로 일관되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60대 이상 유권자층의 강한 보수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젊은층 유권자인 30대에서도 민주당 투표에 대해 음(-)의 방향으로 영향력이 나타난 것은 젊은 세대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후보를 나이든 세대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후보를 지지하는 세대별 투표 양상과는 다른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1-3은 부분적으로만 지지된다. 이러한 결과는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 경향이 강화된다는 연령 효과가 한국에서 실재하는지에 대해 경험적으로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과 유사한 질문을 제기하게 한다(이내영, 정한울 2013; 황아란 2009).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를 경험적으로 구별한 이내영, 정한울(2013)은 1973년 이후 출생자들은 연령효과를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1953년 이전 출생자에게서만 보수화 경향이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60대 이상에서 지속적으로 민주당 투표에 대한 영향력이 음(-)의 방향으로 나오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된다는 연령효과보다 분단, 한국전쟁, 빈곤 등 그 세대가 살아오면서 공유하는 역사적 경험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노환희, 송정민 2013; 강원택 2013). 또한, 60대 이상에서 계수의 크기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그림 1-2>에서 논의한 것처럼 이른바 '86세대'의 일부가 60대에 접어들어서도 그들의 정치적 정향을 유지하는 세대효과 때문인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2002년 16대 대선 당시 2030세대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 된 것에 대해 선행 연구는 젊고 고학력일수록 진보적 성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 사회 경제적 계층에 따라 진보-보수의 이념적 분화가 나타나는 서구의 경험과는 달리 세대와 그에 따른 교육 수준 차이를 중심으로 이념의 분화가 나타나 세대 균열이 정치화되었다고 본 것이다(강원택 1998; 이내영 2002). 가장 최근에 치러진 2022년 대선을 분석한 결과, 세대 변수 가운데 40대에서 유일하게 양(+)의 방향으로 계수가 나타난 것도 이런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들은 결국 2002년 16대 대선 당시 20대였던 유권자들로, 당시 민주당의 굳건한 지지기반을 구성하는 집단으로 편성되어 지금까지도 일관된 투표선택을 이어온 것이라 할 수 있다(전상진 2012; 김정훈, 한상익 2016). 그러나, 60년대에 태어나 80년대에 청년 시기를 보낸 이른바 '86세대'의 대부분이 속해있는 50대의 경우, 이전 선거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20대를 기준으로 한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계수가 음(-)의 방향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오랜 기간 민주당의 지지 기반으로 분류되었던 이들 중 일부가 이탈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젊은 시절 노무현을 지지했던 '86세대'가 부동산 문제와 같은 생활 이슈에 대해 보수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 선행연구를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며(배진석 2022), 따라서 '세대효과(generational effect)'를 검증하고자 했던 가설 1-4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요약하자면, 2022년 대선에서 '86세대'를 포함한 다른 세대에서도 같은 세대가 공유하는 정체성이 투표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세대 간 차이보다 세대 내의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는 최근의 논의들과 일맥상통한 결과이다(곽관용·마인섭 2019; 신진욱 2022).

이상에서 서술한 분석 결과는 4개의 사회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이기 때문에 다음 절에서 이슈태도를 포함하는 경우 각 변수들의 계수 크기 혹은 통계적 유의성은 바뀔 수 있다. 2022년 대선에서 0.7%p라는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것과는 달리 최근 여론조사에서 전체 유권자들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오랜 시간 지지기반이었던 서울 지역뿐 아니라 2030연령층과 '86'세대인 50대에서 지지철회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현상은 이상의 논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이 보다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각 집단별 분석 뿐 아니라 유권자 개인 차원에서 누가 민주당에 투표했는지 그리고 이들에게는 어떠한 이슈가 영향력을 미쳤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제 2 절 ‘전통적 민주’와 ‘새로운 민주’의 이슈 태도

앞 절에서는 최근 2022년 치러진 대선에서 기존의 정당 지지기반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주요 사회 집단과 그 하위집단들이 민주당 후보에 투표함에 있어 어떤 패턴을 보였는지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2002년대선 당시 형성되고 유지되어 온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구성하는 사회 집단 중 일부에서 이탈(dealignment)이 발견되었으나, 가장 견고한 지지 집단인 호남지역과 진보적 이념, 40대(1970년대 출생)의 지지가 유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지역, 이념, 연령 균열 요인이 해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기존의 민주당 지지층과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들 간에 상이한 이슈태도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들과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 집단을 통합하여 이들의 이슈태도가 어떤 차원으로, 몇 개의 이슈 영역으로 요약될 수 있는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8] <표 6>에 따르면 통합 집단의 이슈 태도는 2개의 요인으로 나누어진다.[9] 요인 2에 적재된 외교, 안보 문제 변수가 요인 1에도 교차 적재 되어있기는 하지만 2017년에 문재인에 투표한 유권자 집단과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에 투표한 유권자 집단 간 이슈태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데는 큰 방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8) 사용한 문항은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차기정부의 국정과제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에서 10사이의 숫자로 말씀해주십시오.”이다.

9) 요인분석에서 적정한 요인 개수 결정을 위해 요인의 고유값(eigenvalue)이 1 이상인 기준 충족 여부와 스크리 도표를 함께 참고하였다.

<표 6>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 문재인 투표층과 이재명 투표층의 이슈 태도

| 변수 | 성분 | | 공통성 (communality) |
|---|---|---|---|
| | 요인 1 | 요인 2 | |
| 경제 문제 (일자리, 물가, 경제성장 등) | 0.0455 | **0.8414** | 0.6844 |
| 청년 문제 (고용, 주거, 저출산 등) | 0.0989 | **0.8169** | 0.6799 |
| 외교,안보 문제 (북핵, 한일관계 등) | **0.6124** | **0.4814** | 0.7549 |
| 복지 확대 | **0.7427** | -0.0110 | 0.7234 |
| 정치 개혁 (개헌, 정당, 국회 개혁 등) | **0.7457** | 0.0438 | 0.7831 |
| 환경 문제 (기후, 에너지, 탄소중립 등) | **0.5991** | 0.1598 | 0.7875 |
| 세금 개혁 (종부세/양도세/법인세 등) | **0.4867** | 0.3651 | 0.7216 |
| 교유값 (eigenvalue) | 2.68324 | 1.67185 | |

*요인 추출방법: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베리맥스

그렇다면,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들을 '전통적 민주',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들을 '새로운 민주' 2 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이 집단 내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7> '전통적 민주'의 이슈 태도

| 변수 | 성분 | | 공통성 (communality) |
|---|---|---|---|
| | 요인 1 | 요인 2 | |
| 경제 문제 (일자리, 물가, 경제성장 등) | -0.0042 | **0.8487** | 0.7203 |
| 청년 문제 (고용, 주거, 저출산 등) | 0.2117 | **0.7305** | 0.5784 |
| 외교,안보 문제 (북핵, 한일관계 등) | **0.5114** | 0.3063 | 0.3553 |
| 복지 확대 | **0.6742** | 0.1131 | 0.4673 |
| 정치 개혁 (개헌, 정당, 국회 개혁 등) | **0.7614** | -0.0225 | 0.5802 |
| 환경 문제 (기후, 에너지, 탄소중립 등) | **0.6147** | 0.2427 | 0.4367 |
| 세금 개혁 (종부세/양도세/법인세 등) | 0.1975 | **0.4586** | 0.2493 |
| 교유값 (eigenvalue) | 2.33681 | 1.56443 | |

*요인 추출방법: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베리맥스

<표 7>에 따르면 '전통적 민주' 집단의 이슈 태도는 2개의 요인으로 나누어진다. 이는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들까지는 적어도 2002년 대선 이후 형성되고 지속되어 온 '전통적 민주'로 구분할 수 있음을 확인해주는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인자 적재량이 0.4 이상일 때 해당 요인과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특히 요인 1에서 외교안보 문제, 복지 확대, 정치 개혁, 환경문제가 하나의 요인으로 요약되었다는 것은 2017년에 문재인에 투표한 유권자들의 경우 권위주의와 관련된 정치개혁, 북한 이슈와 같이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소유'해온 이슈들에 대한 입장이 같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2년 대선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정책입장과 투표행태에 대해 분석한 송근원과 정봉성(2007)의 연구에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이슈는 대북지원 - 국가보안법 폐지 순이었으며, 기업규제와 같은 경제적 이슈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대선 이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호남 지역 유권자들은 "차기 대통령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과제"로 복지확대, 경제민주화, 정치개혁 등 민주당의 이슈를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지병근 2014). 다시 말해, 2017년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투표했던 유권자들은 2002년 대선을 기점으로 형성되고 유지되어 온 민주당의 소유 이슈와 일치하는 이슈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인 2에서 경제문제, 청년문제, 세금개혁이 하나의 요인으로 요약된 것은 2017년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투표했던 유권자들의 이슈태도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중도 성향을 가졌거나 무당파인 유권자들로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층과 동일시할 수 없기 때문에(정한울, 강우창 2017), '새로운 민주'와의 비교를 위해서는 요인 1에 적재된 이슈

들만 분석에 활용할 것이다.

반면, <표 8>에서 ‘새로운 민주’ 집단의 이슈 태도는 대부분 1개의 요인에 적재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들이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에 투표했지만 ‘전통적 민주’와는 다른 이슈태도를 가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새로운 민주’는 ‘전통적 민주’가 부패척결, 대북지원과 같은 이슈에 대해 유사한 태도를 가진 것과는 달리 각 이슈에 대해 서로 상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송진미 2022). 이러한 결과는 ‘무엇을 보고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질문한 문항에 대해 이재명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의 경우 소속 정당을 보고 찍었다는 응답이 5.9%에 그친 반면 후보 개인의 능력과 경력이라는 후보자 요인을 중시했다는 응답이 63.1%로 매우 높았던 조사 결과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강원택 2022). 요약하면, 두 집단은 이슈 태도 차원에 있어 질적으로 차별성을 가진 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가설 2-1을 검증하는 결과이다.

<표 8> '새로운 민주'의 이슈 태도

| 변수 | 성분 | 공통성 (communality) |
|---|---|---|
| | 요인 1 | |
| 경제 문제 (일자리, 물가, 경제성장 등) | **0.6694** | 0.4480 |
| 청년 문제 (고용, 주거, 저출산 등) | **0.7022** | 0.4930 |
| 외교,안보 문제 (북핵, 한일관계 등) | **0.5256** | 0.2762 |
| 복지 확대 | **0.5756** | 0.3313 |
| 정치 개혁 (개헌, 정당, 국회 개혁 등) | **0.4878** | 0.2379 |
| 환경 문제 (기후, 에너지, 탄소중립 등) | **0.6545** | 0.4283 |
| 세금 개혁 (종부세/양도세/법인세 등) | **0.4721** | 0.2228 |
| 교유값 (eigenvalue) | 2.46010 | |

*요인 추출방법: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베리맥스

## 제 3 절 이슈 태도와 투표 선택

이 절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진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이슈태도가 민주당 투표에 독자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가설 2-2의 회귀모형인 모형 2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호스머-렘쇼 검정(Hosmer-Lemeshow, HL test)을 활용하였다. <표 9>에서 검정 결과, 유의 확률(p-value값)이 0.5140으로 “관측빈도와 예측빈도 간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므로 전체적인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길곤 2017).

<표 9> Hosmer-Lemeshow 모형 적합도

| group | Prob | Y=1 | | Y=0 | | Total |
|---|---|---|---|---|---|---|
| | | Obs | Exp | Obs | Exp | |
| 1 | 0.0949 | 2 | 6.1 | 87 | 82.9 | 89 |
| 2 | 0.1520 | 13 | 10.9 | 75 | 77.1 | 88 |
| 3 | 0.2111 | 14 | 16.1 | 75 | 72.9 | 89 |
| 4 | 0.3071 | 28 | 22.5 | 60 | 65.5 | 88 |
| 5 | 0.4397 | 33 | 32.8 | 56 | 56.2 | 89 |
| 6 | 0.5565 | 44 | 44.0 | 44 | 44.0 | 88 |
| 7 | 0.7235 | 56 | 56.0 | 33 | 33.0 | 89 |

| | | | | | | |
|---|---|---|---|---|---|---|
| 8 | 0.8789 | 74 | 71.9 | 14 | 16.1 | 88 |
| 9 | 0.9193 | 79 | 82.1 | 12 | 8.9 | 91 |
| 10 | 0.9915 | 81 | 81.7 | 5 | 4.3 | 86 |
| N | 885 | | | | | |
| No.of groups | 10 | | | | | |
| Hosmer - Lemeshow chi2(8) = 7.21<br>Prob > chi2 = 0.5140 | | | | | | |

<표 10>에는 2 가지의 모형을 분석한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모형들에서 유권자들의 민주당 후보 이재명 투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슈는 복지 확대와 세금 개혁으로 나타났다. 계수의 값도 클 뿐 아니라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했다. 이슈 태도만을 고려한 모형 1에서는 복지 확대와 세금 개혁 변수의 영향력이 $p<0.001$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 문제도 $p<0.05$ 수준으로 민주당 투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복지확대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할수록 이재명에 투표했을 가능성이 큰 반면, 세금 개혁이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할수록 이재명에 투표했을 가능성은 낮아진다.

모형 2는 이슈태도 이외에 그동안 한국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성별, 교육 수준, 거주 지역, 연령, 소득, 주관적 이념을 통제변수로 포함한 것이다. 분석 결과, 이러한 변수들의 통제 후에도 복지 확대와 환경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권자일수록 이재명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2년 대선을

분석한 송근원(2006)의 연구에서 대북 지원, 호주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SOFA 개정 이슈가 노무현 투표와 이회창 투표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태도 차이가 나타난 반면, 복지 향상과 기업 규제 이슈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 시장 재임 당시 청년 배당, 무상 산후조리, 무상 교복 등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시행했다. 대선 과정 중에도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기본시리즈' 정책을 공약과 캠페인 전면에 내세우면서 복지 확대 이슈를 선점하였다. 이는 이전의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내세운 '거대담론'들과는 상이한 것이며, 오히려 서구의 진보 정당이 보수 정당에 비해 재분배와 공공지출 확대 이슈를 선점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과 유사하다(Schmidt 1996; Bradley et al. 2003). 반면, 세금 이슈는 2022년 대선 후보 선택에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금 이슈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이재명에 투표했을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것은 세금과 관련한 이슈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선점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논문과 같은 데이터를 사용한 강원택(2022)의 연구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중'하다고 생각할수록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난 것도 이러한 해석에 설득력을 더한다. 김정훈(2013)은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원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민주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주-반민주' 프레임을 넘어서서 보편적인 진보적 가치를 정책적으로 구체화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의의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이 오랜 기간에 걸쳐 소유해 온 이슈보다 현 정권의 평가와 관련된 단기적 이슈를 선점했을 뿐 아니라, 보다 보편적인 진보적 가치를 내세움으로써 '새로운 민주'를 성공적으로 동원해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보다도 많은 표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0>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 이슈에 따른 투표 선택

| | 모형 1 | 모형 2 |
|---|---|---|
| 경제 성장 (일자리, 물가 등) | -0.072 | -0.002 |
| 청년 문제 (고용, 주거 등) | -0.306 | -0.468* |
| 외교,안보 문제 (북핵, 한미관계 등) | -0.350 | -0.036 |
| 복지 확대 | 0.730*** | 0.450** |
| 정치 개혁 | 0.021 | 0.162 |
| 환경 문제 (기후, 탄소중립 등) | 0.272* | 0.345* |
| 세금 개혁 (종부세/양도세 등) | -0.676*** | -0.667*** |
| 성별(남자=1) | | -0.096 |
| 학력(대재 이상=1) | | 0.020 |
| 인천/경기 | | -0.293 |
| 대전/충청 | | 0.032 |
| 전라/광주 | | 1.674*** |
| 대구/경북 | | -0.887* |
| 부산/울산/경남 | | -0.195 |
| 강원 | | 0.391 |
| 30대 | | -0.287 |
| 40대 | | 0.020 |
| 50대 | | -0.501 |
| 60대 이상 | | -1.118*** |
| 소득(하) | | -0.497* |
| 소득(상) | | -0.263 |
| 주관적 이념(진보) | | 1.864*** |
| 주관적 이념(보수) | | -1.700*** |
| 상수 | 1.135 | 1.646 |
| N | 974 | 907 |
| Pseudo R-squared | 0.070 | 0.346 |

*** p<0.001, **p<0.01, *p<0.05

# 제 5 장 결론

이 연구는 2022년 대선에서 나타난 이전 선거와는 다른 특징이 한국 정당 지지의 변화를 시사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이 연구의 주요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2002년부터 2022년까지 20년에 걸쳐 치러진 총 다섯 차례의 대선을 분석한 결과,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의 주요 균열을 기준으로 하는 사회 집단인 지역집단(호남), 이념집단(진보)은 지속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 1-1과 1-2가 검증되었다. 그러나, 젊은 유권자(2030연령)일수록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나이든 유권자(60대 이상)일수록 국민의힘을 지지했을 것이라는 가설 1-3의 '연령효과'의 경우 검증되지 못하였다. 또한, '86세대'의 세대효과 검증을 위한 가설 1-4는 부분적으로만 검증되었는데, '86세대'의 대부분이 속해있는 50대에서 이탈이 두드러진 반면, 이들의 일부가 속해있는 60대가 민주당 투표에서 차지하는 구성이 높아진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각 집단들의 투표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집단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새로운 세대의 등장 등으로 인해 민주당의 지지기반은 전반적으로 약화되거나 해체(dealignment)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통적 민주'와 '새로운 민주' 집단 간에 이슈에서도 상이한 태도가 나타나는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은 질적으로 차별성을 가진 집단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전통적 민주'의 경우, 민주당이 소유해 온 이슈들과 관련 있는 외교안보

문제, 복지 확대, 정치 개혁, 환경 문제만이 하나의 요인으로 요약된 반면, '새로운 민주'의 경우 모든 이슈 변수가 1개 요인에 적재되었다. 이는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에 투표한 유권자와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에 투표한 유권자들이 같은 정당의 후보에 투표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이후 주요 양당 간 차별성을 구분해 온 탈권위주의, 대북 지원과 같은 이념과 그와 관련된 이슈태도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투표한 것을 의미한다.

셋째, 민주당 후보 투표를 '1'으로 하는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가설 2-2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투바거(Stubager 2018)의 이슈 구분 중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투표에 더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장기적 이슈 소유'보다 '단기적 이슈 소유'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다시 말해, 2002년 대선을 기점으로 민주당이 '소유'해 온 대북정책, 정치개혁 등 권위주의의 유산과 관련된 이슈는 더 이상 민주당에 투표한 유권자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2002년 대통령 선거는 한국 정치에서 이념 균열을 분출시킨 역사적 계기였다. 3김 시대가 막을 내린 후 최초로 실시된 선거였으며, 직전 정부인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인해 반공주의 헤게모니도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였다. 특히, 인터넷의 자유로운 사용이 시작되면서 청년 세대들이 자신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이념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시작했으며(강원택 2003),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대북정책을 비롯한 재벌해체, 정치개혁 등 권위주의의 유산과 관련된 이슈들을 둘러싼 이념적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 시기 형성된 이념적 균열은 한국의 진보와 보수를 구분 지었으며, 2004년 총선 이후 열린우리당이 이른바 4대개

혁 입법(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안, 언론개혁법안, 과거사 진상규명법안)을 추진하면서 민주당은 자유주의적이고 권위주의와 반공주의에 맞서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강원택 2018).

그런데 최근 치러진 2022년 대선을 거치면서 선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슈들과 정책 등을 살펴보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한국 정당 정치의 속성에 변화가 발생했다. 이전 선거들과는 달리 선거 과정과 선거 이후 실시한 서베이 조사 결과에서도 유권자에게 북한이슈, 정치개혁 등 이른바 '거대담론'과 관련한 이슈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특히,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이슈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1순위로 꼽은 응답자는 0.4%에 그쳐 그 영향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강원택 2022). 물론 세대 교체로 인해 유권자층에 새로이 편성된 젊은 유권자들이 경제성장, 세금 등 일상 생활과 관련된 주요한 이슈들에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북한 이슈, 재벌 개혁과 같은 '거대 담론'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다. 정진민(2012)이 지적한 것처럼 젊은 세대일수록 지역이나 이념 균열에 근거한 투표 행태가 줄어들고,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이슈 혹은 현 정권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 투표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관적 이념성향이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20대 유권자들의 이슈 태도를 분석한 결과, '안보는 보수, 경제/복지는 진보'로 나타나기도 했다(최종숙 2020). 또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세계일보 2022/5/18). 더 이상 '민주화'가 민주당만이 소유한 이슈가 아니며,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는 유권자들 모두가 반응하는 이슈도 아닌 것이다. 다시 말해,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부터 2004년 총선 시기 동원되었던 세대 그리고 세대와 관련된 이념적

갈등 구조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새로운 형태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그러한 변화의 흐름을 학술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민주당의 미래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 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법을 개정한 후,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의 불만이 커지면서 핵심 지지층의 지지가 하락하여 2018년 5월,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바가 있다(허진 2018). 비록 단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지지를 변경할만한 이슈가 나타난다면 지지층의 이탈은 단기적인 현상에 불과하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민주당으로서는 누가 '새로운 민주'인지, 이들에게는 어떤 이슈가 중요한지 고뇌해보고 지지층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2002년 대선 당시 형성되고 유지되어 온 민주화, 반공주의, 정치 개혁을 넘어서는 새로운 이슈를 재빨리 선점하는 것이 본 연구가 민주당 정치의 미래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일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정당 지지 기반을 연구한 기존 연구들이 균열이론에 기초한 사회 집단 혹은 후보자, 이슈 등 단기적 요인에만 주목했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양자 모두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한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 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조기에 실시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에 투표한 유권자들을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으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에 투표한 유권자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불가피한 방안이었으며, 요인분석에서 요인 1에 적재된 이슈들만 비교

대상으로 삼아 이를 보완하고자 했다.[10)]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발견을 한국 정당 체계의 재편(realignment)을 시사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데는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이후 선거 결과에 따라 2022년 선거 결과가 일시적인 표의 이동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를 중대선거 내지는 계기선거라고 규정하기는 현재 단계에서 어려우며, 이는 본 논문의 범위에서도 벗어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본 연구에서 발견한 정당지지 기반의 변화와 '새로운 민주'가 지속적으로 유권자들의 투표 선택에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 후속 연구에서 보다 엄밀하고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10)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에서 2017년 문재인에 투표한 유권자들의 지지정당은 더불어민주당(68.79%), 국민의힘(15.91%), 정의당(8.33%)이었으며, 이재명에 투표한 유권자들의 지지정당은 더불어민주당(80.96%), 국민의힘(3.37%), 정의당 (9.64%)인 것으로 나타났다.

# 참 고 문 헌


강원택. 1998. “유권자의 이념적 성향과 투표 행태.” 『한국의 선거II』. 서울: 푸른길.

_____. 2003. 『한국의 선거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서울: 푸른길.

_____. 2005. “한국의 이념갈등과 진보 보수의 경계” 한국정당학회보 4권 (2), 193-217.

_____. 2008. “2007년 대통령 선거와 이슈 회고적 평가 혹은 전망적 기대” 의정연구 14권 1호 , 31-58.

_____. 2010. 『한국 선거정치의 변화와 지속: 이념, 이슈, 캠페인과 투표 참여』. 나남.

_____. 2018. 한국 정당 정치 70 년: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정당 정치의 전개. 한국정당학회보, 17(2), 5-31.

_____. 2019. 정당 지지의 재편성과 지역주의의 변화: 영남 지역의 2018 년 지방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8(2), 5-27.

_____. 2022. “부동산 정책과 후보자 도덕성: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슈가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 EAI 대선패널조사 스페셜리포트

고길곤. 2017. 통계학의 이해와 활용 (제 3 판). 고양: 문우사.

곽관용, 마인섭.2019.″한국 20대의 보수와 진보: 세대 간 및 세대 내 비교″, 비교민주주의연구, 15권 2호, 35-73.

김만흠. 1994. “정치균열, 정당정치 그리고 지역주의”, 한국정치학회보,

28집 2호, 215~237.

김일영. 2004. 17 대 총선의 역사적 의미와 정당체계 재편 전망. 한국동북아논총, (32), 365-383.

김정훈. 2013. 18대 대선의 의미와 진보의 재구성. 경제와사회, 121-154.

김정훈, 한상익. 2016. 신화의 붕괴, 그리고 희망의 정치?: 20 대 총선에서 나타난 유권자 지형의 변화. 경제와사회, 110, 12-37.

김주찬, 윤성이. 2003. 2002 년 대통령선거에서 이념성향이 투표에 미친 영향. 21 세기정치학회보, 13(2), 87-103.

김진주. 2020. 한국 유권자의 정당 지지 변경 요인: 제3정당의 출현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9(3), 183-211.

김한나. 2022. “청년 젠더 갈등: 이념 갈등 뛰어넘어 한국 정치의 새로운 균열선 될까?”EAI 대선 패널 조사 스페셜리포트

노환희, 송정민, 강원택. 2013. 한국 선거에서의 세대 효과: 1997 년부터 2012 년까지의 대선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2(1), 113-140.

박명호. 2009. 2008 총선에서 나타난 세대 효과와 연령 효과에 관한 분석: 386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8(1), 65-86.

박상훈. 2009. 만들어진 현실: 한국의 지역주의,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개정판. 후마니타스.

박원호, 신화용. 2014. 정당 선호의 감정적 기반: 세월호 사건과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8(5), 119-142.

박원호. 2012. 세대 균열의 진화: ‘386 세대’의 소멸과 30 대 유권자의 부상. 『한국 유권자의 선택』 1

_____. 2018. 지방선거와 정당 재편성. EAI 논평, 1-6.

배진석 .2022. “세대 간 차이보다 세대 내 차이: ‘86세대’인가 ‘60년대생’인가?”, EAI 대선 패널 조사 스페셜리포트

성경륭. 2016. 사회집단과 정치권력: 변화하는 선거연합과 투표기제, 대통령선거 (1992-2012) 분석. 한국사회학, 50(1), 1-39.

송근원, 정봉성. 2007. 16 대 대선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정책입장과 투표행태. 21 세기정치학회보, 17(1), 45-70.

송근원. 2006.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2002 년 대선 후보들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2(1), 1-36.

송진미. 2019. 보수정당 지지층의 균열과 이탈: 2012-2017 년 대선 패널 데이터 분석. 한국정치연구, 28(1), 109-146.

_____. 2020. 합의이슈정치와 유권자의 선택: 2012 년, 2017 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이슈경쟁과 이슈소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_____. 2022. 합의이슈정치와 유권자의 선택: 2017 년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이슈경쟁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6(1), 217-259.

신진욱. 2022. 『그런 세대는 없다: 불평등 시대의 세대와 정치 이야기』, 개마고원

오세제. 2015. 386 세대 세대효과의 특징 연구: 세대효과의 조건적 표출을 중심으로. 21 세기정치학회보, 25(1), 133-164.

이남영. 2002. 세대와 투표참여. 계간 사상, 166-188.

이내영, 정한울. 2013. 세대균열의 구성 요소: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 의정연구, 19(3), 37-83.

이내영. 2002. 세대와 정치이념. 계간 사상, 53-79.

_____. 2011.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원인: 국민들의 양극화인가, 정치엘리트들의 양극화인가?. 한국정당학회보, 10(2), 251-287.

이내영. 정한울. 2007. 이슈와 한국 정당지지의 변동. 한국정치학회보, 41(1), 31-55.

이준한, 임경훈. 2004. 과연" 중대선거" 인가? - 제 17 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유권자 투표결정요인 분석. 한국정치연구 13.

장기영, 박지영. 2018. 한국 정당지지자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와의 이념거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한국 정당지지자의 투사효과 비교분석. 한국정당학회보, 17(1), 77-102.

장승진. 2016. 제 20 대 총선의 투표선택: 회고적 투표와 세 가지 심판론. 한국정치학회보, 50(4), 151-169.

전상진, 2012, "2040이 보수를 혐오하게 된 이유", 『철학과 현실』, 봄호(통권 제92호) pp. 30-40.

정재도, 이재묵. 2018. 영남 지역주의 투표행태의 변화연구. 대한정치학회보, 26(4), 59-92.

정진민. 2002. 세대와 정당정치. 계간 사상, 103-124.

_____. 2012. "한국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와 세대: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21권 2호, pp.1-21.

조기숙. 1996. 합리적 선택: 한국의 선거와 유권자. 한울 아카데미.

조중빈. 1993. 유권자의 여야성향과 투표행태. 한국의 선거. 서울: 나남, 49-63.

지병근. 2014. 호남 유권자들의 이슈에 대한 태도 및 이념적 특성. 21 세기정치학회보, 24(1), 33-56.

최종숙. 2020. '20 대 남성 현상'다시 보기: 20 대와 3040 세대의 이념성향과 젠더의식 비교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189-224.

최준영, 조진만. 2005. 지역균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고찰: 제 17 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이념과 세대 균열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3), 375-394.

최효노. 2003. "한국의 사회균열과 유권자-정당 지지연합: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새천년민주당 사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_____. 2018. 한국정당의이슈소유권 (issue ownership) 과 유권자 투표행태: 20 대 총선을 중심으로. 의정연구, 53, 171-202.

허석재. 2014. 한국에서 정당일체감의 변화: 세대교체인가, 생애주기인가. 한국정당학회보, 13(1), 65-93.

황아란. 2009. "정치세대와 이념성향: 민주화 성취세대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15권 2호, pp.123-151.

Abramowitz, Alan I. & Kyle L. Saunder. 1999. "Ideological Realignment in the US Electorate." *The Journal of Politics* 60, No. 3(Aug.).

Almond, G. A., & Verba, S. 2015.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Axelrod, R. 1986. Presidential Election Coalitions in 1984.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1), 281 - 284.

Bellucci, P. 2006. "Tracing the Cognitive and Affective Roots of 'Party Competence': Italy and Britain." Electoral Studies 25-3: 548-569.

Berelson, Bernard, Paul F. Lazarsfeld, and William N. McPhee. 1954. Voting: A Study of OpinionFormation in a Presidential Campaig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Bradley, David, et al. 2003. "Distribution and redistribution in postindustrial democracies." World Politics 55, No. 2. pp. 193-228.

Brody, Richard A. and Benjamin I. Page. 1972. "Comment: The Assessment of Policy Voting."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6(2).

Budge, Ian, and Dennis Farlie. 1983. "Party competition: selective emphasis or direct confrontation?: an alternative view with data." In H. Daalder & P. Mair eds, Western European party systems: Continuity and change. London: Sage.

Campbell, Angus, Philip Converse, Warren Miller and Donald Stokes. 1960. The American Voter. New York: Willey.

Carmines, E. G., & Stanley, H. W. 1992. The transformation of the new deal party system: Social groups, political ideology, and changing partisanship among northern whites, 1972 - 1988. Political Behavior, 14(3), 213-237.

Dalton, Russel J. 1984. "Political Forces and Partisan Change." In Russel J.Dalton, Scott C. Flanagan, and Paul Allen Beck eds. Electoral Change in Advanced Industrial Demorcracies: Realignment or Dealignment?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_____. 1996. "Comparative Politics: Micro-behavioral Perspective."Robert E. Goodin and Hans- Dieter Klingemann,

eds. *A New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New York: Oxford Univ .Press

Erikson, Robert S., and Kent L. Tedin. 2005. American Public Opinion: It's Origins, Contents and Impact. New York, N.Y.: Routledge.

Green, J., and S. B. Hobolt. 2008. "Owning the Issue Agenda: Party Strategies and Vote Choices in British Elections." Electoral Studies 27-3: 460-476.

Holian, David B. 2004. "He's stealing my issues! Clinton's crime rhetoric and the dynamics of is-sue ownership." Political Behavior, 26(2): 95-124.

Kang, Won-Taek. 2008. "How Ideology divides Generations? The 2002 and 2004 South Korean elections."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41, No.2, pp.461-480.

Key, V. O. 1955. "A Theory of Critical Elections." *The Journal of Politics* Vol.17, No.1, 3-18

_____. "Secular Realignment and the Party System." *The Journal of Politics* Vol.21, No.2, 198-210.

Lipset, Seymour M. and Stein Rokkan. 1967.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Cross-National Perspectives. New York

Lodge, M., & Taber, C. S. 2013. The rationalizing vot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nnheim, Karl. 1952. "The Problem of Generations." In P. Kecskemeti, ed.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Manza, J., and C. Brooks. 1997. “Social Cleavages and Political Alignments: U.S. Presi-dential Election, 1960~1992.”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 937~976.

Mayhew, 2000. “Electoral Realignments.”*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3.

_____. 2004. Electoral Realignments: A Critique of an American Genr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Owen, Diana. 2013. “Political Parties and the Media: The Parties Response to Technological Innovation.” Mark Brewer and L. Sandy Maisel, eds. Parties Respond: Changes in American Parties and Campaigns. Boulder: Westview Press.

Petrocik, J. R. 1981. Party coalitions: Realignment and the decline of the New Deal party syste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_____. 1996. “Issue ownership in presidential elections, with a 1980 case study.”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0: 825-850.

Schmidt, Manfred G. 1996. “When parties matter: A review of the possibilities and limits of partisan influence on public polic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30, No. 2. pp. 155-183.

Stanley, H. W., & Niemi, R. G. 1995. The demise of the New Deal coalition: Partisanship and group support, 1952-1992. Democracy’s feast: Elections in America, 220-40.

Stubager, Rune. 2018. “What is issue ownership and how should we measure it?” Political Behavior, 40(2): 345-370.

Sundquist, James L. 1973. Dynamics of the Party System: Alignment and Realignment of Political Parties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뉴스기사]

강은경. (2022.1.4.) 대선 핵심 의제 '거대담론' 보다 '집값 안정 주거권 확보' 1순위. 매일신문.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010417011412656

고동욱. (2022.2.14.) 이재명, 상의 찾아 '최고임금법' 거론하며 "삼성전자 몰락법"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214118151001

구자홍. (2022.3.7.) "이재명은 북한 잘못에 할 말 하는 실용 외교 한다". 신동아. https://shindonga.donga.com/3/all/13/3228256/1

윤명진. (2021.12.31.). 이재명 '정책이슈 주도권' 잡기 총력전.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23101070609317001

김명일. (2022.3.5.) 이재명 "지금 군사독재 시절과 다르지 않아" 이준석 "급하니 文도 맹공".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politics/election2022/2022/03/05/FC4I4AGNCBHHNNZAPCL2NJN624/

김동환. (2022.5.18.) 사실상 전원 '광주행' 국민의힘, 5·18 정신 되새겨… "자유민주주의 지켜가겠다".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518515649?OutUrl=naver

박준영. (2022.3.2.) [선택 2022] 이재명 vs 윤석열…'캐스팅보트' 2030의

선택은?. 데일리한국.
http://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794975

윤종열. (2021.4.20.) 이재명 "국민의 삶 개선 위해 작든크든 '실용적 민생개혁 실천'에 매진".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5OC93UV

허진. (2018.5.8.) [문재인 정부 1년] 文떠받치는 두 기둥 86그룹과 참여연대…靑·내각만 25명 포진.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603541

# Abstract

# Issues and Party Support:

## Supporters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in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Suin Kim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wheth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imply the change of party support in South Korea. The thesis focus on supporters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focused on the social cleavages theory, this thesis claims that public attitudes towards issues provide a better explanation on the change of party support.

The major findings of this thesis are as follows. First, the findings showed that partisan de-alignment occurred among the young (2030s)

- Seoul - "86 generations" voters, whereas Jeolla voters remained loyal to the Democratic Party.

Second, the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vealed that the "new democrats" who voted for Lee Jae-myung in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traditional democrats" who voted for Moon Jae In in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were different groups in terms of public attitudes towards issues.

Finally, the results of a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short-term issue ownership" had a more significant impact on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s vote than "long-term issue ownership." Said differently, the "new democrats" were not affected by the issues such as "support for North Korea" or "political reform" that had been owned by the Democratic Party for a long time.

Taken together, the findings of the thesis suggest that the structure of party support and competition, which was formed since 2002 presidential election, is changing with the passage of time. In particular, the change within the supporters of Democratic Party implies the emergence of new issues and values in our society. These changes are likely to cause a secular realignment in future elections.

**keywords : 2022 presidential elections, party support, realignment, dealignment, social cleavage, issue attitude**

*Student Number* : 2019-20407